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지치지 않는 미 소비자 파워.. 소매 판매 예상치 넘어
- Bloomberg: 뉴욕 제조 활동은 5개월째 위축
- Bloomberg: 뉴욕연방은행 총재, “올해 금리 인하 시작할 수 있다”

#### [미국 금융]

- WSJ: 미 국채 매각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 CNBC: 높은 이자율로 시장은 '혼란', 연준은 '예의주시'
- WSJ: 골드만삭스, 1분기 수익 급등

#### [미국 생활]

- CNN Business: 은퇴 연령 이후에도 일하는 미국인 늘어난다
- CNN Business: 미국인들의 저축이 줄어든다는 것은?

#### [부동산]

- WSJ: 임대료 계속 오른다 ... 인플레이션 부추겨

#### [물류]

- WSJ: 트럭 운송업체, 수익 전망 어둡다

#### [오일]

- Bloomberg: 이란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석유 시장 안정세

#### [세계 경제]

- Bloomberg: 회복세의 세계 경제, 부채 및 불평등 감춘다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 64억불 지원금 받아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Retail Sales Top Forecasts as Consumers Keep Fueling Growth**

#### **지치지 않는 미 소비자 파워 ... 소매 판매 예상치 넘어**

- 3월에 미 소비 판매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2월 소비 판매도 상향 조정됐다. 지속적인 소비자 수요가 놀랄만한 강한 미 경제를 이끌고 있다.
- 소매 구매 판매 규모는 2월보다 0.7% 증가했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월요일 밝혔다.
- GDP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이른바 ‘통제 그룹 판매’(Control-group sales)는 작년초 이래 가장 높은 1.1% 상승했다. 이는 식품, 자동차, 빌딩 자재, 가솔린 판매를 제외한 수치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New York Factory Activity Contracts Again While Prices Pick Up****뉴욕 제조 활동은 5개월째 위축**

- 4월 뉴욕주 제조 활동은 5개월째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체에 주는 자재 비용은 거의 1년동안 최고치로 상승했다.
- 뉴욕연방중앙은행 일반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6.6 상승한 마이너스 14.3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수치는 위축을 의미하며 이번 수치는 모든 예상 수치보다 낮았다.
- 반면에 자재에 지불하는 현재 비용 지수는 5포인트 늘어난 33.7로 작년 5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고 제조업체들이 받는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투입 가격 전망 수치는 1년 이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Williams Still Expects Rate Cuts to Begin This Year****뉴욕연방은행 총재, “올해 금리 인하 시작할 수 있다”**

- 뉴욕연방은행총재인 John Williams는 만약 인플레이가 점차 둔화되면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현재 통화 정책은 양호하며 소비자의 구매력은 여전히 강하고 거시경제도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 3월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물가 둔화가 정체를 하고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는 최근 인플레이 지표가 전환점으로 보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자신의 의견이나 예상에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America's Bonds Are Getting Harder to Sell****미 국채 매각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 미 국채가 경매에서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밀려오는 국채를 흡수하기 힘들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악화되고 있다.
-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 보고서 발표로 늘어난 매도세는 3백9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의 판매 수요 부진으로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3년물과 30년물 국채의 경매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이런 투자자들의 태도는 인플레이가 제대로 둔화되지 않고 연준이 고금리를 향후 수개월간 최고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 모기지와 기업 용자를 비롯한 모든 차용 이자율의 지표가 되는 10년물 수익률은 지난 10월 5%를 돌파한 이하 최근 4.5%로 거의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이다.

## WSJ 기사

### CNBC: Surging inflation fears sent markets tumbling and Fed officials scrambling

#### 높은 이자율로 시장은 '혼란', 연준은 '예의주시'

- 올해 들어서서 물가 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투자자, 소비자들, 정책 결정자, 이코노미스트들은 당황한 상태다.
- 올해 초만 해도 시장은 연준이 조기에 그리고 여러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 지난주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채워졌다. 인플레이가 계속된다는 소식이 추가되었다.
- 현재 연준 관리들은 높은 인플레이 소식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경계 알람을 울리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관리는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 CNBC 기사

### WSJ: Wall Street Powers Goldman Sachs to Sharply Higher First-Quarter Earnings

#### 골드만삭스, 1분기 수익 급등

-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수익이 급등했다. 투자 은행 서비스의 강한 실적과 부유층 고객을 위한 자금 및 투자 관리에 힘입은 데 따른 것이다.
- 1분기 수익이 41억3천만불 달러로 작년에 비해 28% 상승했다. 이는 주당 11불 58센트로, 전문가들은 달러당 8달러 73센트를 예상했었다.

## WSJ 기사

### [미국 생활]

### CNN Business: More people are working well past retirement age. It's not easy

#### 은퇴 연령 이후에도 일하는 미국인 늘어난다

- 미국인 중에 75세 이상은 노동 인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다. 그 규모는 지난 1964년 이래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연령대 중 일하는 인구는 향후 10년간 두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나이 들어서 일하는 이유는 오래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줌 등 온라인 재택근무도 노인의 일을 쉽게 만들고 있다.
- 그러나 고령층의 50% 정도는 불가피하게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
- 현재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노인층 인구의 4분의 1 이상에게 수입의 90%를 차지한다.
- 많은 노인이 일자리를 선택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 **CNN Business: Americans are saving less these days. Here's why and what that means** 미국인들의 저축이 줄어든다는 것은?

-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인들이 예전처럼 저축 계좌에 돈을 넣어 두지 않는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소비자 지출이 견조한 이유이다.
- 경제학자들은 저축이 줄어들면, 저소득층일수록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고 경고했다.
- 2월 개인 저축률은 3.6%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2022년 이전 10년간의 수치 아래를 맴도는 중이다.
- 목요일 Wells Fargo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인들은 경기 침체 이후, 지속해서 저축을 줄여 왔다”며 이것이 장기적 추세의 연속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CNN Business 기사

### **[부동산]**

### **WSJ: Rents Are Still Rising and Pumping Up Inflation** 임대료 계속 오른다 ... 인플레이션 부추겨

- 연준은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임대 시장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수요와 기록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임대료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최근 두 자릿수 최고치에서 둔화되고 있는 중이다. 경제학자들은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서, 임대료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다.

- 그러나 연준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얼마나 빠르게 하락할지는 미지수이다.
- Moody's Analytics의 Thomas LaSalvia는 “주택 인플레이션은 보통 일반 인플레이션보다 높다. 하지만 지금은 더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 WSJ 기사

## [물류]

### WSJ: Trucking Oversupply Is Weighing on Carriers' Earnings Outlooks 트럭 운송업체, 수익 전망 어둡다

-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의 운송비 절감 시도로 트럭 운송 업계의 수익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
- 트럭 운송 부문의 화물 운임률이 줄어들고 있다. 애널리스트들과 업계 경영진들은 장기계약 가격도 하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객들이 재고와 물류 지출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 DAT Solutions는 4월 평균 계약 요금이 마일 당 2.4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센트 하락한 것으로 평가했다. 해당 기업은 트럭과 운송회사 (Shipper)를 매칭하는 기업이다.
- DAT 수치에 따르면, 현물 시장의 평균 요금은 연초 이후 6.5% 하락했다.

## WSJ 기사

## [오일]

### Bloomberg: Oil Traders Keep Calm Even as Iranian Missiles Fly 이란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석유 시장 안정세

-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석유 시장이 예상 밖의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 석유 시장의 하락세를 예측했던 Citigroup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나,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 월요일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 트레이더들이 지금까지 이란의 공격이 확전 가능성을 높이기 보다는, 제한적인 보복적 성격을 지닐 뿐이라 결론 내린 것.
-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사우디와 OPEC+ 동맹국들이 하루 500만 배럴 이상의 여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부족량을 채우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그룹은 올 여름 시장 시장이 긴축한 상황이 오더라도 경제태세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 Bloomberg 기사

## [세계 경제]

**Bloomberg: A Resilient Global Economy Masks Growing Debt and Inequality****회복세의 세계 경제, 부채 및 불평등 감춘다**

-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봄 회의에서 IMF가 주요 경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2024년 경제에 대한 단기적 낙관론이 반영된 것.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024년 세계 경제가 2023년 말의 2.7%에서 2.9%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 하지만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책이 비용을 높이지 않았다는 총체적인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미래 상황이 그리 안정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지정학적 위험으로 가득찬 세상에는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책 입안자들은 세계 각국이 지정학적 블록으로 재편되고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으로 소수의 부유층에게 이익이 집중되어, 전 세계 성장률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팬데믹 이전 5년 동안 전 세계 성장률은 평균 3.4%를 기록했다. 하지만 IMF는 향후 5년간의 성장률이 30년 만에 가장 저조할 것이라 경고하는 중이다.

##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Samsung Electronics Gets \$6.4 Billion for Texas Chip Plants****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 64억불 지원금 받아**

- 연방정부는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에 64억달러를 지원한다. 미국에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의 일환이다.
- 삼성은 이 지원금을 통해 텍사스 오스틴 바로 옆에 있는 테일러에 4백50억불을 투자해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그리고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 연구능력을 늘릴 것이라고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이 규모는 삼성이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지난 2021년 약속한 규모의 두배 이상 수준이다.

## WSJ 기사

## 연준 금리인하 기대 줄어 美 국채 투자자들 '신중모드'

### 중동전 확산 가능성에 '반짝' 수요 가능성 국채 발행도 많아 매수 꺼려...5% 돌파 예상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작아지면서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중동전쟁 확산 우려가 일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미국 국채 수요가 일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국채 금리는 연중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